

한 땅에 두 아파트?...지역주택조합원들 피해 우려

용두동 부지 사업승인 취소 놓고 건설사 수년째 소송
또다른 건설사 건립 추진...부지 일부인 6700㎡ 겹쳐
조합원 모집 예정에 복구 “문제 해결한 뒤 모집하라”

구경과 건설사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놓고 수년째 소송을 진행 중인 부지에 또 다른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뒤늦게 사업에 뛰어들은 건설사는 이달 말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 복구 등에 따르면 K건설사가 아파트(650세대) 건립 계획을 세운 복구 용두동 산87-1번지 일원 3만1966㎡의 부지와 최근 S건설사가 아파트(566세대)

를 지으려는 용두동 449번지 일원 3만 2580㎡의 부지 중 산82-1번지 등 약 6700㎡가 겹친다.

복구와 K건설사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복구는 K건설사가 복구 용두동 산 82-1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받아 놓은 사업계획 승인을 지난 2012년 12월 취소했다. K건설사는 지난 1986년 광주 시로부터 아파트 건립 계획을 승인받았다.

문제는 K건설사가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26년이 지난 2012년까지 착공신고서를

■ 두 건설사의 겹치는 아파트 부지



제출하지 않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30년 가까이 아파트 건립이 지연되면서 K건설사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준 소유자 20여명이 광주시에 “건설사의 공사 지연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

며 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당초 사업 승인을 내준 광주시는 취소 권한을 관할 자치구인 복구에 위임했고, 복구는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K건설사는 지난 2013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당했지만 지난 2014년 1월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7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복구가 항소해 이 소송은 아직도 법원에 계류중으로, 대법원까지 갈 경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S건설사는 문제의 땅을 포함한 부지에 ‘용두동의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를 짓는다’며 언론과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 예약 조합원을 받고, 이달 말 복구 각화동 에 홍보관을 연다고 홍보 중이다.

S건설사는 K건설사가 30여년 전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놓은 부지 중 상당 부분 토지의 매입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 업계에서는 S건설사가 해당 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K건설사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구 관계자는 “오늘에서야 관련 사실을 파악해 S건설사에 ‘K건설사의 권리가 살아 있는 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라는 내용이 담긴 시정 명령 문서를 발송했다”며 “아직까지 조합설립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예비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S건설사 관계자는 “문제의 부지를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며 “앞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수배 조폭 잡고보니 ‘나이롱 환자’

요양급여 챙긴 한의원 원장도 탈미

전남경찰, 보험사기 102명 적발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를 ‘나이롱 환자’로 받아 요양급여를 챙긴 한의원 원장이 탈미를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광주시 복구 모 한의원 원장 김모(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 101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광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101명과 공모해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입원료 명목으로 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 한의원에는 아간 치료시설이나 입원실이 설치되지 않아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데도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환자들이 허위 입원으로 챙긴 보험금을 1인당 2만~3만원씩 입원비 명목으로 챙겼다.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질병임에도 수차례 들러 통원 치료를 받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했다. 이렇게 허위 입원으로 환자들이 챙긴 보험금만 2013년부터 2년간 총 4억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범행은 영동한데서 드러났다. 폭행 혐의로 경찰의 주적을 받던 광양 조직폭력배 K(26)씨가 붙잡히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K씨를 검거한 뒤 도피자금을 마련한 출처를 캐다 허위 입원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착수, 김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병원 측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실 유무 등을 확인하는데, 이 병원은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환자들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수익을 챙겨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허위 입원 실태를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교통사고 허위 신고

보험사기 35명 적발

전도경찰은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수천만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한모(3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한씨의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한 장모(32)씨 등 34명도 갈

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신고해 4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보험사가 진도처럼 외진 곳에는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전화통화만으로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허점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도=박현영기자 hypark@



초등생들 문화탐방

14일 광주시 복구 삼각동주민센터가 마련한 ‘삼각골 문화 돌레길 탐방 행사’에 참가한 삼각초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적이업인 ‘래인플라워’에서 대표로부터 화분 제작 과정을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아내와 불륜 의심 후배 살해범 15년형

국민참여재판 중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판결했고, 양형 의견에서 5명은 이씨에게 징역 15년, 2명은 징역 12년, 1명은 징역 13년, 1명은 징역 18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를 비롯한 유족들이 받

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5월15일 여수 자신의 집에서 후배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준비한 흉기로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향응·성접대 받은 검사

면직 처분 조치는 적법

사건 관계인의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송환)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강모(39)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 11~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성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과 유충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된 강씨는 소송을 내면서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이 흔례를 하게 돼 이를 논의하러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받은 자리에 원고 검사실의 제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돈관계가 될 사이에 유충주점에서 만나 흔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술자리를 마련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원고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귀금속 절도범 잡고보니 내연남



○...20대 주부가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돌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간 내연남을 붙잡은 경찰에 엄벌을 촉구.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서구 모 아파트에 사는 주부 A(29)씨는 지난 4월 중순 집 장롱에 숨겨둔 돌반지, 팔찌 등 귀금속 11점(400만원 상당)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애만 태우던 중 곧내 금은방을 정기 탐문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소식을 최근 접했다는 것.

○...“그놈이 분명해”라고 짐작만 하다가 실제 붙잡힌 절도범이 자신의 내연남인 택시기사 김모(31)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지난 2월 술 마시고 잠아 탄 택시기사와 곧바로 사귀게 됐고, 어린 자녀가 있어 그 사람을 집으로 자주 불러 들여다가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펜션·박물관·미술관·식당·찻집 **최고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상승 가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시세/감평가 - 30억
- 법인체 인수가(이전비 없음)
-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20억 정도 대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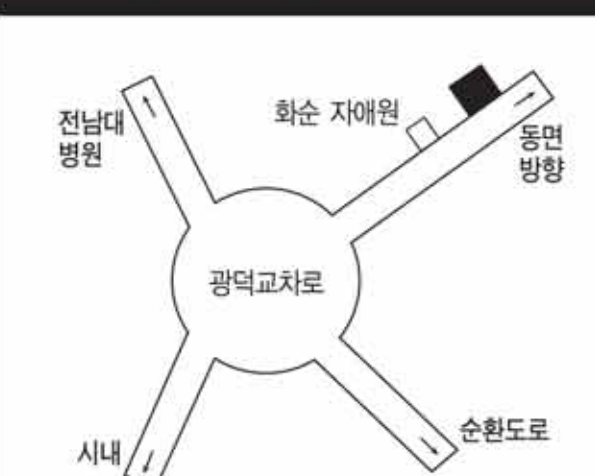
펜션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010-3605-5000

매매 - 22억
동업 - 협의
임대 - 협의
투자 - 협의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1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12월 완공예정)
- 매매-1억 6400만원(일시불 조정가)

전원주택부지



주인직매 H.010-3605-5000

경매투자자

▶특수비법 배우실 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배우면서 투자 가능

▶투자 하실 분!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수익률 - 연 10% 보장

(주)오 천 경 매
H. 010-3605-5000